

외계인이 있다고 믿었던 홍대용

정찬주 <소설가>

벼슬을 단념하고

홍대용(洪大容)은 영조 7년(1731)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를 지낸 홍역(洪櫟)이었고 어머니는 청풍 김씨였다. 그가 태어난 곳은 충남 천원군 수신면 장산리로서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아오내 장터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흥미롭다. 어린 대용은 넉넉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다. 공부보다는 동네 친구들과 놀기를 더 좋아했다.



사람은 곧 황도(黃道)니 백도(白道)니, 남주니 북주니 하며 서로 토론을 벌였다. 어떤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어떤 때는 고개를 가로 젓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들의 토론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더 듣지 않고 잠들고 말았다. 새벽에 깨어보니 두 사람은 아직도 어두운 불빛 아래서 토론을 계속하고 있었다.”

홍대용에게 이런 일도 있었다. 그의 나이 스물아홉이었을 때였다. 대용은 나주 사람인 기술자 나경적(羅

대용은 연 날리거나 식물이나 새 같은 것을 가꾸고 기르는 일이 더 재미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당에는 나가더라도 종아리는 맞지 않을 만큼 건성으로 공부했다. 그러니 벼슬을 얻기 위한 유학 공부가 머릿속에 제대로 새겨질 리가 없었다.

“이제 됐다. 과거에 급제할 실력이 넉넉하니 가 보아라.”

그러나 대용은 아버지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리곤 하였다.

그의 사상은 북학파에 드는 실학자들인 과거를 출제하는 당대 석학들의 공리공론과는 달라 과거

에 급제하지를 못했다.

나중에는 운까지 따라 주지 않아서 거둬 낙방을 하곤 하였다. 그래서 대용은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 때부터 그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였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 중국에서 건너온 책을 구해 보고 또 자신과 뜻이 맞는 선비를 찾아다니는 일이었다.

홍대용의 모습을 박지원은 그의 열하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한번은 홍대용과 같이 정석치의 집에 들른 적이 있다. 그런데 두

경적(景績)과 안처인(安處仁)을 만나 그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여러 가지 천문기구를 만든 일도 있었다.

가지고 있던 사재를 털어 삼년 동안에 걸쳐서 홍천의와 자명종(그는 후종(候鍾)이라 불렀다) 등을 만들어 자기 집 앞의 호수 가운데 있는 정자에 설치했던 것이다.

북경의 선교사를 만나

홍대용이 처음으로 북경을 찾은 것은 그의 나이 35세 때였다. 그때의 감회를 의산문답이라는 책으로 남겨 놓고 있는데, 의산문답의

주인공인 허자(虛子)와 실옹(實翁)은 홍대용 자신의 자화상이 아닐까?

의산문답은 홍대용이 꾸며낸 이야기로서 허자라는 학자가 60일 동안의 중국여행을 마치고 요동의 명산인 의무려산(醫巫閭山)을 올라간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허자는 조선의 학자로서 30년간 학문을 탐구한 사람이었다. 그는 중국의 학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를 놀라게 할 만한 대학자를 만나지 못한 채 한숨을 쉬며 의무려산을 오르고 있었다.

“주공(周公)이 쇠했는가? 철학자가 위축되어 있는가? 우리의 도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에 돌문이 솟아 있고, 실옹(實翁)이 사는 곳이라는 표지가 보였다.

이렇게 해서 허자와 실옹이 만나 과학의 이치에 대해서 문답을 나누게 되었다는 내용이 의산문답이다.

실제로 홍대용은 북경에서 머물렀던 60일 동안 서양의 선교사를 만나 서양 과학을 알기 위해서 네 번을 찾아가 세 번의 필담을 나누었다. 필담이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써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당시 남(南) 천주당에는 독일계 선교사 할러슈타인과 고가이슬이 있었는데 그들은 중국 흠찬감의 책임자와 부책임자였다. 흠찬감은 중국 최고의 천문기구로서 120년 이상을 서양 선교사들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홍대용은 선교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청심환 같은 조선의 특산물을 예물로 보내기도 하였다.

처음으로 홍대용은 망원경을 구경했다. 망원경으로 태양을 바라본 홍대용은 깜짝 놀라고 말했다. 태양 한가운데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의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있던 흠찬감의 책임자 할러슈타인 선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태양에 그어진 줄이 아니라 망원경에 수평을 잡기 위해 그어 둔 줄이니까요.”

그어진 줄 말고도 홍대용은 또 의심이 있었다.

“선교사 양반, 태양에는 흑점이 세개가 있는데 이 망원경으로는 도통 보이지가 않는구려.” “태양이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요. 흑점이 많을 때는 8개도 나타나지만 오늘처럼 이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태양이 자전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선교사는 홍대용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여기서 홍대용은 풍금을 처음

보고서 실제로 두드려 보기도 하였고, 그리스도와 마리아상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정 시각이 되면 소리를 내어 잠을 깨워주는 뇨종(鬧鐘)이라는, 자명종 시계도 구경하였다.

홍대용은 이때에 보고 들은 과학지식을 유포문답이란 책에 기록하고 있다.

주체의식이 강했던 학자

서양 과학에 일찍 눈을 뜬 홍대용 같은 실학자가 당시에 몇 명만 더 있었다면 우리의 과학사는 좀 더 발전했을 것이다.

홍대용의 생각은 당시의 학자들보다 엄청나게 앞선 것이었다. 하늘에 뚜껑이 있어 땅을 덮고 있다는 당시의 학자들 생각에 그는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그는 지구가 자전한다고 믿었으며, 하늘에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무한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박지원은 그 곳의 학자들에게 홍대용의 주장을 자랑했다.

“서양사람들이 땅은 둥근 줄 알면서도 땅이 자전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둥근 것은 반드시 돌아야 한다는 이치를 몰랐던 때문이요.”

또한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홍대용의 기발한 생각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른바 외계 생물존재론이 그것이다.

정말로 홍대용은 달이나 화성에 사람과 같이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들이 서양 과학을 공부하여 생겨난 지식인지, 아니면 그의 독창적인 상상력인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보인 그의 태도는 그 시대를 앞서 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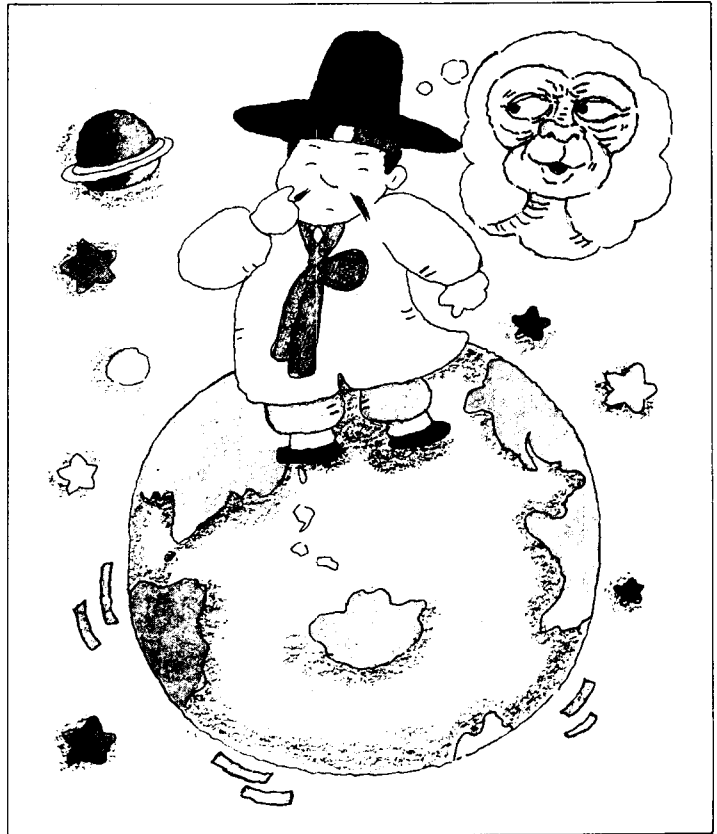
당시의 유학자들은 벼슬과 예의 격식만을 삶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지, 하늘의 일 등은 관심밖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인들이나 하는 일로 여겼던 것이다.

홍대용은 또 상하지세(上下地勢)란 것을 생각하여 지구의 인력 문제도 나름대로 설명했다.

지구는 빠른 속도로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 둘레의 모든 것을 땅덩어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홍대용은 땅덩어리는 어디나 정계(政界)이지 거꾸로 선 땅, 즉 도계(倒界)는 없다고 믿었다. 이러한 과학의 이치를 그는 전통적인 철학사상에다 비교하여 전통사상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즉, 땅덩어리에 정계만 있지 도계가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가운데 나라'라 하여 중국(中國)이라 하지만, 중국이 우리



나라보다 중심이라고 할 근거가 없다며 주체의식이 담긴 사상을 주장했다.

“만약 공자가 조선에 태어났더라면, 중국 중심의 역사가 아닌 조선 중심의 역사책을 썼을 것이요.”

이 말은 홍대용의 그 어떤 과학적 지식보다도 값진 말이 아닐 수 없다.

얼핏 그의 일생을 훑어 보

면 서양과 중국의 문물에 매료된 자기 모습이 없는 학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홍대용 그 자신도 역시 지구의 땅덩어리처럼 바로 선 땅(政界)이지, 거꾸로 선 땅(倒界)이 아니었으며, 그는 의산문답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가득찬 노인(實翁)’이 되기 위해 ‘텅빈 사람(虛子)’이 되었을 뿐인 학자였던 것이다. ☉